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제8강  
11월 8일(화)  
오후 7시-9시

# 세밀화와 실�크로드: 『내 이름은 빨강』을 중심으로



강사: **이난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터키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터키 문학으로 석사학위, 터키 국립 앙카라대학에서 터키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앙카라 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소설 『내 이름은 빨강』, 『순수 박물관』 등 50권이 넘는 터키 문학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했으며, 이문열의 『시인』,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천상병의 『귀천』 등 6편의 한국문학 작품을 터키어로 번역했다. 저서로 『터키 문학의 이해』, 『오르한 파묵, 변방에서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터키문학과 문화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다.

튀르크 족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나톨리아에 정착할 때까지 이들이 접한 다양한 민족의 미적 요소들을 결합시켜 튀르크 민족 특유의 미술 영역을 확보했고, 이슬람 미술사에서 세계성을 지닌 세밀화를 창조했다. 이슬람 미술사에서 세밀화는 독립적인 예술 양식이라기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세밀화는 화집으로 모아지기도 했는데, 물감, 금박, 은박 기술을 사용하여 그렸으며, 빛, 그림자 그리고 부피감을 반영하지 않는 작은 크기의 그림이다.

200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의 대표작 『내 이름은 빨강』은 16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베네치아 화풍의 유입으로 인한 궁정화원 소속 세밀화가들의 갈등과 고뇌가 주요 소재로 다루지고 있다. 소설에서는 실�크로드를 통한 세밀화의 오스만 제국 유입 과정, 세밀화의 역사, 세밀화 제작 과정, 유명한 세밀화가, 세밀화 작품들, 세밀화 기법, 화풍 등 세밀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묘사되고 있다. 오르한 파묵은 이 작품을 통해 16세기 세밀화를 현대적 소설 기법으로 완벽하게 복원해 내는데 성공했다는 찬사를 받게 된다.